

# “현대인들의 흔들리는 마음 그려가고 싶어요”

최근 ‘한국회화전 K아트상’ 수상  
완성품만 50여점...온라인상 화제  
“유화 목직판 매력, 빠져 보실래요?”

“16년 동안 배우로서만 인터뷰했는데... 영 어색해요.”

박기웅(36)이 자신의 그림 옆에서 “쑥스럽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2005년 데뷔해 인터뷰가 익숙할 법하지만 “떨린다”고 말했다. 미술작가로 새롭게 나선 자리이기 때문이다. “화가로는 갈 길이 먼 초보 중 초보”라며 겸손해하지만, 그는 지난달 24일 제22회 ‘한국 회화의 위상전’에서 특별상인 ‘K아트상’을 받으며 벌써 결실을 보고 있다. 오랫동안 키워온 미술을 향한 열정의 힘이다. 8일 서울 삼성동 럭셔리아파트에 걸린 수상작 ‘에고(Ego)’를 소개하는 눈빛에도 설렘과 흥분이 넘실댔다.

박기웅의 ‘그림 사랑’은 꽤 오래됐다. 2005년 대진대 시각디자인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창 시절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돌아섰다.

“붓을 한 번 놓으면 손이 금방 굳어요. 그게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촬영 일정이 아니면 매일 붓을 들었죠. 하루에 길게는 열 시간 가까이 캔버스 앞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이 작업실이 다 됐어요. 방 전체를 김장용 비닐로 싸 두르고, 바닥에는 플라스틱 데크를 깔았죠. 큰 규모의 작품들을 그릴 수 있도록 층고가 높은 집으



“작품 하나하나가 전부 제 ‘자식’ 같아요.” 배우 박기웅이 서울 삼성동 럭셔리아파트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제공 | 마운틴무브먼트

로 이사 가는 게 꿈이 됐던니까요.”

수채화부터 아크릴화, 소묘 등 다양한 소재를 섭렵하다 유화의 “묵직한 매력”에 빠졌다. 서양화가 김성운 등 오랫동안 교류해온 작가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완성한 50여 점의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공개된 작품들도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 작품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 아닐까요? 하하하! 배우로서 화제가 따라온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름을 빼고 그림을 공개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계급장 떼고’ 나서고 싶은 거죠. 그래야 공정한 거니까요. 물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부단히 실력을 쌓아 올려야겠죠.”

화가로 정식 데뷔한 만큼 “책임감과 무게감”도 따른다는 그는 “이유를 모를 만큼 재미있는 그림”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누구나 쉽게 회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갤러리가 아닌 명품 매장에 그림을 내걸었고, 조만간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작품을 선보이고 상을 받은 건 운이 좋아서였어요.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흐드는 패턴 등을 넣은 그림을 보고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는 관객 반응이 특히 기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공감 있게 그려가고 싶어요.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 원동력이 된답니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송혜교,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서 1만부 기증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중국 창사임시정부청사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 11일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서 리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새로운 독립운동 유적지에 안내서를 제작하여 기증하는 일도 좋지만, 기증했던 곳에 끊이지 않게 꾸준히 채워 넣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와 송혜교는 10년간 역사적 기념일 마다 해외 독립유적지 26곳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부조작품 등을 꾸준히 기증해왔다.

### 마마무, 한국가수 최초 내달 英 라이브나우 공연



마마무

걸그룹 마마무가 케이팝 가수 최초로 영국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라이브나우에서 공연을 펼친다. 그룹은 5월1일 라이브나우와 손잡고 ‘라 이브 나우 케이팝 프레젠티즈 마마무’를 꾸민다. 뉴욕을 테마로 한 스튜디오에서 데뷔 이후 7년간의 히트곡들을 선보인다. 라이브나우는 두아 리파, 마룬 파이브, 고릴라즈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해 이름을 알렸다. 해당 무대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에서 방영된다.

### 유승준, 입국거부 관련 6월 다시 법적 공방



유승준

병역 기피 문제로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이 6월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6월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2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같은 해 7월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또 다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 BTS ‘마이크 드롭’ 리믹스 뮤비 9억뷰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9억뷰를 달성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17년 11월 공개한 해당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11일 오전 9시21분 9억건을 넘겼다. 12억뷰를 돌파한 ‘DNA’, 11억 조회수를 거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각 9억뷰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와 ‘페이크 러브’에 이어 5번째 9억뷰 뮤직비디오다. 노래는 발매 직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28위로 진입, 10주 연속 차트 인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 클로이 자오, 아시아계 여성 첫 DGA 감독상



클로이 자오

영화 ‘노매드랜드’를 연출한 중국 출신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미국감독조합(DGA)이 수여하는 감독상을 받았다. DGA는 11일(한국시간) 제73회 시상식을 통해 자오 감독에게 최고 영예의 상을 수여했다. 여성 감독이 최고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DGA 역대 두 번째로 2010년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허트 로커’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이다. ‘노매드랜드’는 경제위기로 살던 도시를 떠나 밴을 타고 유랑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는다. 국내에서는 15일 극장 개봉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윤여정, 콘텐츠 중심에 서다

씨네큐비, 윤여정 대표작 특별 섹션  
OTT 웨이브서도 영화·드라마 편성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노리는 배우 윤여정을 재조명하는 무대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로서 세계적 시선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가 윤여정의 대표작을 모은 특별 섹션을 연다. 26일(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문 후보작인 ‘노매드랜드’와 ‘더 파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등을 상영하는 ‘2021 아카데미 특별전’의 일환이다.



윤여정

한국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가 된 윤여정의 작품을 28일까지 소개한다.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은 그녀의 다채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다. ‘미나리’를 비롯해 2003년작 ‘바람난 가족’과 2010년 출연작 ‘하녀’, 2016년 이재용 감독이 연출한 ‘죽여주는 여자’ 그리고 지난해 출연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5편이 관객을 만난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관련 기획전이 열린다. 웨이브가

5월7일까지 여는 특별전 ‘THE:윤여정-윤여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이다.

‘하녀’와 ‘계춘할망’을 비롯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돈의 맛’ 등 2000년대 이후 그의 대표작 11편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두 번은 없다’ ‘그들이 사는 세상’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윤여정이 출연한 다양한 드라마 18편도 함께 편성했다.

한편 윤여정은 12일 오전 런던의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다. ‘미나리’는 정이삭 감독이 감독상을, 아역 열린 김이 남우조연상을 각각 노리는 등 이번 시상식에서 모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W’, 미국 안방극장 뜨나 CBS 통해 리메이크 예정



드라마 ‘W’ 한효주

연기자 이종석과 한효주가 주연한 드라마 ‘W’가 미국 안방극장을 겨냥한다. 현지의 대표적 지상파 방송사인 CBS를 통해 리메이크될 예정으로, 한국드라마의 힘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MBC는 2016년 드라마 ‘W’의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CBS 스튜디오와 맺었다. CBS는 앞서 2014년 ‘굿닥터’와 2016년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일부 한국드라마의 현지 리메이크를 추진하기도 했다.

‘W’는 한 의사가 우연히 ‘W’라는 제목의 웹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만화의 주인공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종석과 한효주가 주연한 드라마는 방영 당시 13.8%(닐슨코리아)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W’의 미국 리메이크는 이 같은 인기와 함께 2017년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원작 드라마의 참신한 소재와 이야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C ‘복면가왕’과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리즈의 미국 버전을 선보인 현지 제작사 스마트 도그 미디어가 리메이크 드라마를 만들기로 해 또 다른 눈길을 끈다. 스마트 도그 미디어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활용한 콘텐츠로 현지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며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그만큼 ‘W’의 현지 리메이크에 기대감이 쏠린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확대 등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국드라마가 기획력과 보편적 스토리를 내세워 세계적인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W’의 미국 리메이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한국드라마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가는 보고 있다.

윤여수 기자

## 김정현, 서지혜와 열애설 해명하다가 그만...

과거사 태도 논란 소환  
소속사 분쟁까지 알려져

연기자 김정현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 등 잡음에 휘말리고 있다.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호흡을 맞춘 서지혜와 열애설이 난 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김정현의 과거사까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정현의 소속사 오엔터테인먼트는 그와 2016년 맺은 전속계약의 기간에 대한 조정을 최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진정했다. 김정현의 전속계약이 5월로 끝나지만, ‘개인적인 일로 생길 활동 공백 11개월을 (전속계약 기간에서)배제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맞바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현은 2018년 MBC 드라마 ‘시



김정현

간에 출연했지만 방송 도중 섭식장애와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건강을 되찾고 11개월 후 ‘사랑의 불시착’으로 복귀했다. 김정현과 소속사 사이 분쟁의 핵심인 ‘11개월의 활동 공백’이 생긴 시점이다. 이 기간을 전속계약 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소속사 입장을 김정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현은 이 같은 갈등에 맞닥뜨린 뒤 서지혜에게 관련 조연을 구하면서 최근 열애설에 휘말렸다. 서지혜의 소속사 문

화창고는 “김정현이 소속사와 관련해 서지혜와 논의했다”면서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 친한 누나·동생 사이라 집에서 만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오엔터테인먼트도 전속계약 문제로 김정현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정현이 2018년 7월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상대역인 서현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새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김정현의 팬들까지 성명을 냈다. 팬들은 김정현이 “소속돼 있던 5년 동안 자신의 일을 했다”면서 “소속사는 계약불이행이라는 프레임에 씌우고 악의적인 이미지와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